

## 심낭삼출액의 검상하 심낭 배액술

한양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김 혁·지행욱·강정호·김영학·정원상

암환자 및 만성 심부전증 환자의 생존률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 심낭염 및 만성 심낭삼출액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과적 처치도 증가하고 있다. 심낭 삼출액이 심한경우 심낭 압전을 일으키고 또한 만성일 경우 교약성 심낭염등으로 이행되므로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의과적 치료로 충분한 배액과 동시에 조직 생검을 통해 치료의 방침을 정할 수 있겠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1991년 1월 부터 1995년 12월까지 5년 동안 본원에서 심낭삼출액의 진단하에 검상하 심낭 배액술을 시행한 32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낭 삼출의 원인, 검상하 심낭배액술의 효용성, 합병증 및 사망률등에 관해 분석 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1명, 여자가 11명 이었으며 연령은  $47.28 \pm 16.2(23 \sim 76)$ 세 였다. 마취는 전신 마취를 15례(47%), 국소 마취를 17례(53%)에서 시행 하였으며 질환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악성이 15례(47%), 결핵성 4례(13%), 원인불명 6례(19%), 교원성 질환 2례, 심낭절개 증후군 2례, 세균성 심낭염 1례, 요독성 1례, 울혈성 심부전증 1례 였다. 심낭삼출액 검사 및 심낭조직검사를 통하여 심낭삼출액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와 수술후 진단이 바뀐 경우가 악성인 경우 4례였으며, 양성인 경우 5례로 총 9례(28%)에서 술전 치료 방향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술후 30일 이내 사망은 3례로 사망률은 9%였으며 악성질환에서 2례, 양성질환에서 1례 있었다. 술후 합병증은 심부전증 3례, 호흡부전 2례, 창상감염 1례이었고 악성 질환의 평균생존률은  $159.42 \pm 41.98$ 일 이었다. 술 후 검상하 심낭배액이 재차 필요하거나 심낭제거술이 시행된 경우가 2례로 재발률은 6%이었다. 따라서 검상하 심낭배액술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적은 이환률 및 재발률로 시행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국소마취가 가능하며 늑막의 감염을 배제하므로 심낭삼출액의 의과적 치료시 선택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되며 심낭삼출액의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